

# 家庭管理 行動을 爲한 人類學的 接近

Eine anthropologische Begründung für das haushälterische Handeln

梨花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助 教 授 文 淑 才

Dept. of Household Administrations Ewha Woman's Uui.

Assistant Prof. Dr.; Sook Jae Moon

## <目 次>

- |                |                      |
|----------------|----------------------|
| I. 서 論         | 4. 인간 생존보존의 근본 자세    |
| II. 본 論        | 5. 가정관리 행동의 근본 자세    |
| 1. 인간 생존의 궁핍   | 6. 가정관리 행동과 사회문화적 환경 |
| 2. 인간 생존보존의 방법 |                      |
| 3. 인간 생존보존의 형태 | III. 결 論             |

## <Zusammenfassung>

Es wird hier versucht, die doch sehr subjektive geprägte Gestalt des Familienhaushalts mit wissenschaftlichen Methoden an objektiven Kriterien darzustellen.

Alle wirtschaftlich relevanten Handlungen entspringen Bedürfnissen.

Bedürfnissen bestimmen immer den Zweck der Handlung.

Nach dem ökonomischen Prinzip geht es dabei um die bestmögliche Verwendung knapper Mittel für bestimmte, den Bedürfnissen entsprechende Zwecksetzungen.

Haushälterischen Handeln aber geht über das ökonomische Prinzip hinaus. Im haushälterischen Handeln geht es auch um die rationale Kontrolle der Bedürfnisse. Hier ist der Masstab die den Bedürfnissen vorausgehende und die der Bedürfnisbefriedigung nachfolgende Lebensnot.

Ein vernünftiges haushälterisches Handeln muß deshalb zwei Kriterien erfüllen:

1. Knappe Mittel müssen den höchsten Nutzen bringen.
2. Der Nutzeffekt muß die persönliche, menschliche Lebensnot optimal abzuwenden.

An Hand dieser beidenparameter kann das haushälterische Handeln objektiv und mit wissenschaftlichen Methoden überprüft, beurteilt und korrigiert werden.

## I. 서 論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뿐만아니라 경제적인 일한 지식을 통하여 경제와 관련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함을 알고 있다. 인간의 욕구는 경제행동의 동기를 부여할뿐 아니라 경제행동의 목적을 제시한다. 경제의 일반적 원칙은 부

족한 자원으로 욕구충족을 위한 최대의 효용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관리 행동은 이런 경제원칙에서 한단계 넘어서 부족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원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목적의 방향을 추구한다. 즉 가정관리 행동에는 욕구의 합리적인 통제가 포함된다 따라서 욕구를 유발하고 욕구충족을 갈망하는 인간 생존의 궁핍은 가정관리 행동의 동기와 목적에 대

한 평가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합리적 가정관리는 부족한 자원으로 최대의 효용을 누릴뿐 아니라 효용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개개인의 개별적이고 인간적인 생존의 궁핍을 해결하는데 이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관리 행동의 이 마지막 목적을 학문적 객관성을 갖고서 검토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인류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가정관리 행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인류학이란 인간의 과학<sup>1)</sup>으로써 ‘인간이란 무엇이나’하는 것을<sup>2)</sup> 규명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가정관리 행동의 주체인 인간의 실체를 인류학적 배경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왜 우리 인간이 가정관리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필연적 동기를 규명하고 분석하여 인간행동의 일부의 가정관리 행동이 어떤 범주내에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추구하고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에서 “생리적 조산아”로<sup>3)</sup> 태어난 인간의 생존의 궁핍에<sup>4)</sup> 대하여 논하므로써 생존의 궁핍에서 비롯한 인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규명하고 2장에서 인간의 생존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사회적 보조수단인 가족과 도구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3장에서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생존을 위한 인간행동의 범주를 규명함으로써 인간행동의 일부인 가정관리 행동의 범위를 살펴 보았고, 4장에서 생존을 위한 인간행동의 근본자세를 추구하고 5장에서 가정관리 행동의 기본방향을 유도하였고 6장에서 인간행동의 근본자세에서 비롯한 가정관리 행동의 기본방향의 구체적 표현에 있어 가정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얼마나 많은 다원성을 나타내는가를 추구하고 보았다.

## Ⅱ. 본 론

### 1. 인간 생존의 궁핍

생물학자 Portmann 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에 비해 “생리적 조산아”로 태어났다. 따라서 새로 태어난 아기는 혼자서 생존할 수 없고 인간의 도움없이 죽고 만다. 이런 인간의 자연에 의한 결핍은 여러 고등동물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부분

의 동물은 출생후 짧은 시간안에 자기 종속에 알맞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종족 고유의 본능이 그의 생활을 이끌어 준다. 그러므로써 동물은 그 동물종족의 특수한 생활범주에 완전히 속하고 적응할 수 있다. 동물의 생존의 궁핍은 간단하고 직접적이다. 춥고 배고프고 적이 두려우면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의 궁핍은 동물과 판이하다. 모든 동물의 특성인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행동이 인간에게는 결핍되어 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 미분화되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다. 즉 출생시 부터 생존의 궁핍을 안고 있다. 인간 생존의 궁핍은 우선적으로 육체적 결핍에서 기인된 생존적 욕구의 충족을 요구한다. 생존을 위하여 칼로리와 영양가가 적절히 배합된 음식물을 요구하고 기후와 온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옷과 휴식을 위한 수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단지 인간에게 이런 단순한 생존의 욕구만을 충족시킨다면 인간은 동물과 별 차이가 없다. 그의 신체는 부양되었지만 그의 정신적인 인간적인 삶은 위기에 도달한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할때 이것은 사람의 형질적 특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 태도 사람이 이룩하는 것과 이러한 행위나 태도의 배후에 있는 사상등을 들어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생명보존을 위한 양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양적이고 질적인 욕구의 충족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영양가와 칼로리가 이상적으로 배합된 음식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원하고 온도나 날씨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멋있고 아름다운 옷을 원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욕구가 일시적으로 충족될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끊임없이 충족되기를 원한다. 즉 한 인간의 생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새로이 반복되고 수정되고 창조되는 생존의 욕구를 수반한다.

연령 성별 건강 인종 기후등 인간의 자연에 기인한 신체적 욕구는 자연과학연구의 도움으로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인간의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 역사 문명에서 비롯한 정신적 욕구는 단지 양적이고 질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은 건강과 생명의 위협없이 양적인 욕구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변형시킬수 없지만 양적이고 질적인

육구는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sup>6)</sup>

본능의 상실로 인하여 주어진 인간행동의 개방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책임하에 행동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였고, 동시에 무한한 욕구를 가지는 존재로 만들었다. 따라서 인간은 무한한 욕구중에서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하고, 또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선택해야 하고 또 그의 생존의 궁핍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를 표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계없는 무한한 욕구의 추구는 욕구의 경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기준은 인간을 일반적인 욕구의 과잉과 부족에서 보호하는 조절작용을 한다. 이때 생활기준의 척도가 되는것은 인간 생존의 궁핍이다.

즉 생존의 궁핍과 욕구에서 비롯한 생활기준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보존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

생존보존을 위한 생활의 자세는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인간에게만 유보되어 있다. 인간만이 자신의 책임하에 생존보존의 형태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과업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만이 여러가지 형태로 가정을 통하여 그의 개별적인 생존의 궁핍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해결할 수 있다.

## 2. 인간 생존보존의 방법

생리적 조산아로 태어난 인간은 동물에 비해 연약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주위의 도움없이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인간의 자연에 의한 도움의 필연성은 보금자리 형성을 요구하고 그 형성을 위해 기술과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즉 신체를 자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을 짓는다든가 옷을 입는다든가 또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 수렵을 한다든가 등의 기술뿐 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는 사회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 태어난 아기는 사회문화적인 “제 2의 탄생”을<sup>6)</sup> 통해서 만이 비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이런 사회문화적인 “제 2의

탄생”을 통해서 신체의 궁핍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될 뿐 아니라 그가 속한 인간 사회의 고유한 관습, 행동양식, 지식 체계, 가치관, 신앙등을 습득하고 사회적 지위와 이에 따르는 역할등을 습득하여 사회성원으로서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화과정은 인간의 성숙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가지 인간연구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생존보존은 처음에는 그를 둘러싼 주위환경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가능하지만 성장과 더불어 이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변화한다. 성장한 인간 또한 생존의 궁핍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사회적인 보호를 원한다. 따라서 그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사회적 힘의 도움으로 자신의 가족에서 떠나 살아갈 수 있는 자신고유의 보금자리를 꾸민다.

그가 이러한 보금자리는 그가 어떻게 그에게 부여된 도구와 사회적인 보조를 이용했는가에 對한 그의 상상력과 표현능력의 결과이므로 그의 재산이다.

개개의 인간은 생리적 궁핍을 보완시키기 위한 도구의 사용에 중점을 두거나 또는 정신적 궁핍을 위한 인간의 사회적인 보조에 중점을 둘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자신 고유의 생존보존을 위하여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의 궁핍을 보완해 주는 도구와 인간의 보호없이 생존할 수 없으며 이런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곳이 가정이다. 따라서 가정관리 행동의 동기는 인간의 생존의 궁핍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가정관리 행동의 목적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 3. 인간 생존보존의 형태

많은 인류학적 연구를 통하여 소유와 재산과의 관계에서 비롯한 가족형성의 다원성을 살펴볼 수 있듯이 난혼제, 군혼제, 모계가족, 부계가족 그리고 일부일처제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형태의 가족형성은 소유와 사회구조와의 관계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가족형성의 다원성으로 미루어보아 인간 생존보존의 형태는 그가 속한 사회문화의 소유와 가족의 사회구조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문화의 산물이다.

개개의 인간은 사회문화적인 “제 2의 탄생”을 통하여 문화속에 태어났으며 자기가 속한 문화에 적응하던 하지않던 주어진 문화적 환경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다. 즉 인간 생존보존의 형태는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배경안에서만 형성되고 가정 관리 행동 또한 주어진 문화적 환경속에서만 가능하다. 예로써 소유와 가족의 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사회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를 비교해 보자. Engel은 그의 유명한 “가족의 기원, 사유재산과 국가”라는 책에서 “사유재산과 가족의 형성에서부터 소유자(자본가)의 비소유자(노동자)에 대한, 또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착취가 일어났다고 표현하였다.

Engel은——자녀의 양육을 위해 수렵과 전쟁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남성들이 재산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해 여성의 소유화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가부장제의 가족형태속에서 여성이 억압을 받게되었다고——말하며 인간은 이 관계에서 벗어나 사회속에서 사회를 위하여 생활할 때 만이 자유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런 가족과 소유에 대한 이념에 반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유하고자하는 인간의 욕구가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민경제를 원활히 움직이는 매체가 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자유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상적인 사회주의는 생존욕구의 충족을 사회적인 공동체를 통하여 갈구하는 반면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개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충족되기를 추구하였다. 개인의 모든 문화속에서 소유와 가족과의 관계는 이 두가지의 극단적인 범주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관리 행동은 가정이 어느 사회의 문화권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통해서 혹은 개인을 통해서 그 행동의 형태가 제시될 뿐 아니라 그 행동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관리 행동은 그 가정이 속한 사회문화

적인 배경속에서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 4. 인간 생존보존의 근본자세

인간 생존의 궁핍은 인간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약화되기도하고 강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존보존을 위한 생활표현의 근본자세는 사회문화적 테두리를 벗어나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볼수있는 초문화적인 성격을 띄운다.

일반적으로 생활표현의 근본자세를 “expansive 자세”(homo faber)와 “adaptive자세”(homo curativus)로 구분할수 있다. Expansive 자세는 세계를 알고 만들고 창조하여 자연을 정복하려고하는 남성적인 자세다. 이 자세는 완전한 물질의 공급을 추구하고 목적지향적이며 기술화 전문화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노동과정에서 인간을 기계화 시키기도 한다. Adaptive 자세는 자연에 순응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끊임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적이고 사랑의 헌신과 보호에 주력하는 여성적인 자세다. 이 자세는 극단적으로는 아이, 부엌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전형적인 여성의 역할을 나타낸다. 이 두가지의 기본자세를 중심으로 인간은 생명보존을 위한 자신의 생활태도를 수용한다. 인간은 그의 자연적인 과업인 가족형성과 생리적 생존보존만을 전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의 행동은 단순한 생리적 생존표현을 목적으로 “충족고유의 실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충족보존의 기능만을 반복한다. 반대로 인간은 충족고유의 실존보다 사회적 인간으로써의 존재를 추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연에 의한 충족보존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사회문화적 환경속에 심어진 노동에 대한 추구이다. 노동은 원칙적으로 비인간적인것을 목적으로하고 객관적이고 사무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이다. 이런 노동의 비인간성은 극단의 경우 인간이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일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상황을 초태한다. 만약 이와같이 인간이 노동상황을 자신의 실존의 목적과 내용으로 삼는다면 그는 바로 도구의 일종이고 기계이다. 이런상황은 인간을 고도로 전문화 시키고 인간이 사물처럼 강해지기를 요구하는 반면 개인을 사회의 기능주의 속에 완전히 종속하도록

록 만든다.

이 두개의 극단적인 길 즉 생물적 종족보존의 길과 극단의 진문화된 노동생활의 길속에서 인간은 생존보존의 합당한 방향을 찾는다. 즉 한번은 이쪽으로 또 한번은 저쪽으로, 그러나 이 두개의 극단적인 길에서 어느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생존보존에 위협을 준다. 종족보존을 위해서 치우친 사람은 그가 생물적 생활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핍된 정신적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욕구불만이 된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두고 남성의 소유로써 단지 생리적 봉사에만 기여하였기 때문에 지성이 개발되지 못하다가 현대의 여성해방사상에 의해서 눈을 떠 사회 참여를 위해 투쟁하는 여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대로 남자들은 현재의 노동집약적사회에서 긴장과 피곤을 느낀다. 그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파로하였다. 폐질, 근무불능증 등은 이런 일방적인 생존보존의 생활태도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가정관리 행동의 도움으로 인간 생존의 궁핍에서 벗어나려면 이 두개의 생활표현의 근본자세 즉 보호와 노동을 적당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인간생존의 표현은 이 두개의 자세의 합리적 조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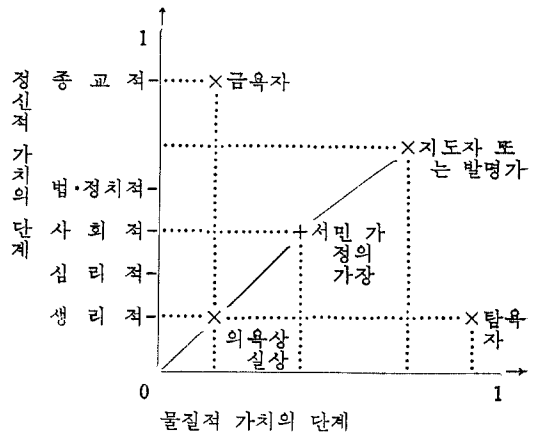
### 5. 가정관리 행동의 근본자세

생활표현의 남성적 자세는 목적지향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완전한 물질의 공급을 위해서 힘쓰는 반면 여성적 자세는 보호의 기능을 갖고 있다. 여성적인 행동은 가치의 세계를 추구하고 보호의 기능에 전념한다. 즉 새로운 물질의 창조가 아니라 사랑의 헌신에 기본가치를 둔다. 이 두 방향의 인간행동의 근본자세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인간에게 부여된 두 방향의 근본자세가 인간 생존의 궁핍을 벗어나는 데 다시말해서 생존의 욕구와 그 욕구의 충족을 위해 실제적 상황속에서 어떻게 작용되는 지 살펴보자.

가정관리 행동 속에서 인간은 변화하는 물질세계와 그 사회조직의 이상적인 인생관 속에서 개개인을 표현할 수 있는 이상적 가치를 발견하여야 한다.

인간은 생존보존을 위하여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두 방향의 생활영역 속에서 자유로히 행동할 수 있으나 이 두 방향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금욕자도 생존보존을 위해 최소한의 물질을 필요로하고, 물질추구에만 몰입하는 탐욕자 역시, 약간의 생존의 불안을 느끼고 정신적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방금 제시한 원칙에 근거하여 가정관리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인간의 실제적인 생활태도를 도표로 설명하면 도표 1과 같다.

<도표 1>



도표의 가로축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물질적 가치의 단계를 표현한 것으로 0의 수치 가까이는 생존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가치를 나타내고 1의 수치 가까이는 인간의 그 무한한 욕구충족을 위해 추구할 수 있는 최대의 물질적가치의 표현이다. 따라서 0의 수치 가까이는 인간생존보존을 위해 신체적으로 겨우 생존하는 실태의 표현이고 1의 수치는 무한한 인간의 물질적 가치의 수치다. 개개의 인간은 이 0과 1의 수치 사이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물질적 가치의 척도를 발견한다. 정신적 가치를 표현하는 세로축 역시 0의 수치에서 1의 수치로 나타나는데 0의 수치 가까이는 생존할 수 있는 최소의 정신적 가치이고 1의 수치는 생존보존의 자세를 거의 정신적 가치에 치중하는 상태이다. 모든 인간은 역시 0과 1의 수치 사이에서 즉 생리적 단계에서 비롯하여 심리적 사회

적 법적 정치적 단계로 점차 상승하여 정신적 가치의 마지막단계인 종교적 가치에 이르는 그 범주에서 생존보존을 위한 정신적가치의 척도를 발견하고자 한다.

모든 인간은 따라서 물질적가치와 정신적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활태도에 의해서 가정관리 행동의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물질적가치와 정신적가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금욕자나 이상가 처럼 정신적 가치에 비중을 많이두고 물질적 가치에 최소의 가치만을 부여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지만 탐욕가나 사기꾼처럼 물질적 가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정신적 가치는 겨우 생리적욕구만 충족시키는데 만족함으로써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경우는 욕구가 없는사람 즉 그의 생활력이나 행동이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최소의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정신적 가치 또한 생리적 단계에 머무르는 형과 우리 서민가정의 충실한 가장처럼 그가 필요로 하는것 이상은 추구하지 않고 그러나 부가 적당한 정도로 유지되고 증식되며 그의 정신적 가치는 사회적 단계에 머무르는형. 그리고 또 발명가, 지도자 처럼 최상의 부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형을 예로써 볼 수 있다.

이상제시한 도표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관리 행동의 실제적 수행방향을 측정할 수 있고 객관적인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 6. 가정관리 행동과 사회문화적 환경

가정관리 행동을 하는 사람의 생활표현의 자세는,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가치의 지향중 그가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달려 있다. 생활표현의 근본자세는 일차적으로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무관하다. 즉 탐욕적인 인간의 생활자세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나 미개문화에서나 매 일반이다. 그러나 이런 생활자세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형태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물질적 소유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대량 생산을 통하여 부의 축적이 가능하지만 미개사회에서는 소를 훔치거나 혹은 이웃부락을 점령함으로써만이 재산을 물울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 문화권 속에서

가능한 가정관리 행동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도 존재하나 그 내용과 표현방법이 서로 상이하다. 왜냐하면 가정관리 행동은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행동내지는 결정의 반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가정관리 행동을 제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한편으로는 기술경제의 발전을 통하여 자원조달과 자원소비의 방법에 영향을 줌으로써 가정의 부양기능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인 인생관을 통하여 가정구성원들의 욕구구조 형성에 영향을 준다. 즉 가정관리 행동은 개개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상이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원시적 기술이나 빈곤 혹은 사회적 통제나 정치적 압력은 가정관리 행동의 반경을 좁게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행동반경을 넓게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은 가정관리 행동을 위한 가능한 범위를 제공할뿐 아니라 행동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준다.

가정관리 행동의 목적은 가정구성원들의 욕구충족에 있다. 욕구충족의 필요성은 습관 전통 관습을 통한 욕구규범을 형성하는데 이 욕구규범을 일반적으로 생활표준으로 표현한다.<sup>9)</sup> 이는 가정관리 행동의 사회문화적 관계의 표현이다. 즉 가정관리 행동은 주어진 환경의 사회문화적인 인생관에 의해서 개인고유의 생활표준을 형성할뿐 아니라 주어진 기술경제적 여건에 의해 어떤 특정한 생활표준을 지향한다. 따라서 한 가정의 특수한 가정관리 행동의 양식은 욕구충족을 위하여 어떤 환경적 여건이 부여 되었으며 또 이 여건속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 Ⅲ. 결 론

인류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가정관리 행동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구한 내용을 농축시키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생리적 조산아로 태어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의 궁핍을 안고 태어났다. 이 생존의 궁핍에서 인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무한한 욕구가 일어나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은 가정관리 행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가정관리 행동의

동기는 인간의 생존의 궁핍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가정관리 행동의 목적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생존의 궁핍의 관점에서 충족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생존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expansive 자세와 adaptive 한 자세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 자세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만이 생존을 보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문화적 존재 이므로 인간행동의 근본자세의 구체적 표현방법과 형태는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그 범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행동의 일부로써 가정관리 행동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즉 가정관리 행동은 인간의 신체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의 상호관계, expansive 자세와 adaptive 자세의 균형 그리고 가정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관리 행동의 방향과 범주는 생존궁핍의 극복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고,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서 가정관리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1) 최신덕, 인류학. 이대출판부. 1972, p. 27.

2) 이광규, 문화인류학개론. 일조각. 1980, p. 16  
 3) Portmann, A. zoologie und das neue Bild vom Menschen. Hamburg. 1956, p. 49.  
 4) Gehlen, A.: Der Mensch. Bonn 1962.  
 5) Vgl. Fromm, F.s Der moderne mensch und seine Zukunft, Frankfurt/M, 1960  
 6) Vgl, König, R.: Soziologische Orientierungen Köln. 1965.  
 7) Engels, E.: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es, Berlin 1946.  
 8) Buyterpijk, F.: Die Frau. Natur, Erscheinung und Dasein, Köln, MCMLIII.  
 9) Mühlmann, W.E.: Umriss und Probleme einer Kulturanthropologie, Berlin 1966, p. 17.  
 10. Rudolph, W: Der kulturelle Relativismus. Berlin, 1968  
 11) Hausen, K: Familieals gegenstand historischer Sozialwissenschaft. In: Geschte und Gesellschaft, Jg. 1. Heft 2/3, 1975.